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일상의 순교

윤봉문 요셉 성지는 수백여 종의 다양한 나무와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특히 사시사철 곧게 뻗어 있는 편백나무와 대나무가 만들어놓은 작은 오솔길은 일상에서 벗어난 소박한 쉼을 주고, 순교자 탑 인근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지세포만의 풍광은 마음마저 넓고 푸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윤봉문 요셉 성지의 순례길은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함께 묵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윤봉문 요셉 성지에서 일상의 순례자가 되어 순교적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때론 무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오늘 기념하는 순교 선조들처럼 서슬 퍼런 박해시대에 살았더라면 머뭇거리기 없이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지금 당장 목숨 내놓고 실존을 다해 오롯이 신앙을 증거할 수 있을까? 자문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순교가 한순간의 결정적 선택만이 아니라 가꾸어진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임을 묵상하다 보면 작은 희망은 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증거의 장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을 증거하려 노력하다 보면, 부족하지만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루카 9,23) 예수님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마침내 순교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말합니다.

이렇듯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상의 순교’는 신앙적 삶의 충실함이 스며있고, 드러나는 일상을 가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실히 지켜왔던, 습관처럼 살아왔던 가꾸어진 신앙적 삶이, 그러한 환경이 자신을 지켜주고 순교를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충실한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 그리고 애써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을 증거하려는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일상을 가꾸어가다 보면, 이 일상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순교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순교’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의 순례자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해 가면서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마침내 순교적 삶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항상 제자리에, 출발선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이는 순교를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도 하느님 보시기에 조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아니 목표지점을 눈앞에 둔 어느 작은 오솔길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순교자들의 전구로.

크기도 넓이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이 선들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듯 순교를 향한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순교란 매일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조각들에서 시작되고 이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승리와 은총의 월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점을 찍듯 작은 오솔길을 걸으며 기도해 봅니다. 지나온 자국들이 모이고 모여 순교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길.



전병이 요아킴 신부 | 거제지구 성지 담당



제 1 독 서 지혜 3,1-9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 서 로마 8,31L-39
복 음 루카 9,23-26

주일 진례



천지 창조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의 첫 번째 순례지는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부분인 창세 1,1-2,4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세상은 질서 있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한 처음에 땅은 물과 뒤섞여 아무런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조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명령은 즉시 실행됩니다.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지며, 첫 3일에는 피조물이 존재할 공간이 창조되고, 나머지 3일에는 그 공간을 채울 피조물이 창조됩니다. 첫째 날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밤과 낮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으며, 땅의 식물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걸릴 빛물체들, 곧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채울 해양 생물과 바다 괴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을 채울 온갖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신학과 비교할 때 놀라운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오직 임금만이 신의 모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신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수메르의 창조 신화와 '에누마 엘리쉬'라고 부르는 바빌론의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지만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그렇게 세상을 돌보고 보살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사람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푸른 풀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된 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의 일이었습니다(창세 9,2-3 참조).

이렛날이 되자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이렛날의 쉼을 통해 그날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의 창조는 6일간의 창조와 이렛날의 쉼이라는 리듬을 통해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의 여덟 가지 창조 행위를 일부러 6일간의 틀에 맞추어 이렛날의 쉼을 강조합니다. 곧 쉬는 것이 창조질서의 한 부분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에 따르면 멈춤이나 쉼을 무시한 채로 성장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야기를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느님의 이름 '엘로힘'은 35번 언급됩니다. 35는 구약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7의 배수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는 말도 일곱 번 되풀이됩니다(창세 1.4.10.12.18.21.25.31).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 창조 행위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공통된 구절로 표현함으로써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를 통하여 저자는 하느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읽기 11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1차 선교여행의 출발과 키프로스 선교(13,4-12)

드디어 사도 바오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땅 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사도 1,8)을 수행합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의 파견을 받은 바르나바와 사울은 안티오키아의 부속 항구 셀레우키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일행은 배를 타고 바르나바의 고향 키프로스로 갑니다. 일행은 살라미스의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때 먼저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자기 가족과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일까요? 물론, 동족 가운데 많은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참된 제자들이 나온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림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바르나바와 사울 일행이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 유대인 마술사 하나를 만

나는데, 바르예수, 곧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루카는 그가 거짓 예언자였다고 전합니다. 그는 세르기우스 바오로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총독의 수행원이었는데, 유대인을 수행원으로 둔 것을 보면 총독은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각 지방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이 회당들을 통해 유대교를 받아들인, 곧 하느님을 섬기게 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르예수를 곁에 두었던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를 시기한 그 거짓 예언자가 방해를 하지만 결국 총독은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르예수가 눈먼 자임이 드러납니다.

사울에서 바오로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르예수라는 이름에 더해 엘리마스라는 이름이 언급된 뒤 즉시 사울이라는 이름에 더해 바오로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13,9). 그리고 이 대목 이후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바오로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편집한 결과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루카가 사울에서 바오로로 이름이 바뀌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만든 의도적 장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오로가 두 가지 이름을 모두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오로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사울로, 유대 밖에서는 바오로로 불렸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이때부터 사도 바오로는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루카의 초대 교회 이야기, 곧 사도행전의 전면에서 등장합니다.

광화문 광장과 우리 본당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 때문에 일어난 파동과 코로나19의 재확산 기사를 읽으며 떠올랐던 감정은 걱정과 우려만은 아니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미미하지만 스멀스멀 올라오던 것, 참으로 부끄럽게도 그것은 안도감이었다. 나와 가까운 이들이 속한 세상의 경계가 그들과 멀다는 것에 나는 안심이었다. 내 부모님이 그날 광장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는 다행스러웠다. 전광훈 목사가 내가 속한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아는 이들이 광장에 모여 막말로 점철된 구호에 아멘을 외칠 가능성이 적다는 것, 내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점잖아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무엇, 무엇, 나는 그들과 나를, 그들과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을 찾아내며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 야무지게 손가락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들을 내



삶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며 누구나 비난해도 마땅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들과 맞닿을 만한 삶의 결들이 모두 제거된 채 때 묻지 않은 종이처럼 파리하고 알팍하게 남아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들에 비해 몇몇한가. 단지 광화문 광장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코로나19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적 고통에 책임이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최근 출판된 민중신학자 김진호 선생의 『대형교회와 웰빙보수주의』는 광화문 광장 집회의 큰 축이 된, 개신교 우파라는 난처한 정치세력이 한국 사회에 형성된 배경을 분석한다. 1990년대 경제 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의 개신교회는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양과 경제력을 갖춘 귀족적이고 세련된 고학력 중산층 신자가 주도하는 종교로 바뀌었다.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교회를 쇼핑하듯 찾아다니는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던 개신교회는, ‘웰빙보수주의’라고 책에서 이름하고 있는 그들의 ‘품위 있는’ 문화적 영성적 요구에 맞춰 예배의

형식과 교회 운영, 교육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다. 이 흐름을 따르는 기성 교회가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하는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난한 이들이다. 김진호 선생은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이가 된 그들이 사회의 변방에서 만나게 된 대표적인 두 그룹이 신천지와 극우주의라고 말한다. 신천지는 소외된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방식으로, 개신교 우파는 상처받은 그들의 분노를 쏟아낼 대상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흡수하며 세력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차, 이차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두 그룹은, 이제 와 애써 부정하고 싶어도 도리 없는, 한국 개신교회의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뒷모습이다. 가난하고 실패한 이들, 경쟁에서 밀려나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자신들의 경계 밖으로 쫓아내며 성장과 발전을 구가해 온 지난 20년 세월의 역풍을 지금 호되게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산층, 품위 있고 세련되고 교양을 갖춘, 귀족적인” 등으로 표현되는 웰빙보수주의 신자들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바깥세상에 대한 성찰이 없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진 이들끼리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며, 기존 사회 질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고만고만한 윤리적 삶에 자족하며, 가난이라는 실재하는 고통을 추상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기도문을 통해서나 기억하고 입에 올리는 이들의 영성은 사실 우리 본당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영성이 아닌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패한 이들,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도태된 이들을 품어줄 자리를 우리는 만들었던가? 어쩌면 꽤 오래전부터 천주교회는 소위 웰빙보수주의를 추구해 오지 않았을까? 개신교회에서 밀려나 신천지를 만나 새 삶을 찾았다고 하는 이들이나, 광화문에서 구국의 열정을 불태우며 예수 한국을 외치는 이들 가운데 천주교회의 고고한 문턱에 애초에 발을 들여놓을 엄두를 내어 본 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가난과 고통이 관념과 도덕으로 승화하면, 역설적이게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실재하는 가난과 고통은 언제나 사람의 몸을 입는다. 거친 숨을 내쉬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으며 울고 성내고 신음하는 고통스런 사람의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예수가 가파르나움 근처의 언덕에서 산상설교를 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제자들과 같은 정예부대뿐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무리’가 있었다. 산상설교 구절이 나오기 전 마태오는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묘사한다. “그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이었다(마태 4,24). 예수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무리들은 성화애나 등장하듯 다소곳이 앉아 눈을 빛내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설교를 새겨들던 웰빙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천태만상의 고통을 드러내며, 찌든 가난의 냄새를 풍기며, 밥을 내놓으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외로워 죽겠다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노라고 아우성치던 군중이다. 분노의 정도로 치자면, 또 ‘개념’과 ‘질서’가 없는 정도로 치자면 아마도 광화문 광장의 군중과 닮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 예수는 그 악다구니 속에서 상처 입고 서러운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이 안쓰러워 자신의 마음을 내어 주었다. 예수의 그 마음은, 광화문 광장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족과 지인이 없다는 이유로 안도감이 들었던 내 마음과는 멀어도 한참 먼 것일 게다. 그들에게 마침내 버림받고 죽어가면서도 “이리와 내 살을 먹어라” 했던 예수의 마음은,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교양 있고 말 잘 통하는 신자들이 우리 본당에 많았으면 은근히 바라는 내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일 게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두호(알로이시오) 몬시뇰
1993년 9월 26일



교구장 동정

노동사목소위원회 심포지엄

일시: 9월 22일(화)
장소: CBCK

광주신학교 공식 방문

일시: 9월 24일(목)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 책자 신청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책자만 신청받습니다.

내용: 2021년 교리교안 보급

주제: 주님의 기도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책자비 : 7천 원

신청 : 9월 27일(주일) 17:00까지 신청서

발송 및 연수 책자비 입금

※ 마감 이후 신청 불가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교구/본당

그라츠 자매교구위원회

일시: 9월 24일(목) 11:00

장소: 교구청

3차 청년교리 연수

일시: 10월 10일(토) 14:00~1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대상: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청년

참가비: 1인 6만 원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신청: 10월 4일(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 세면도구(수건),

텀블러, 마스크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일시: 9월 23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례미사 및 월모임

일시: 9월 24일(목) 13:30

장소: 교구청

교구 평협 상임위원회의 회의

일시: 9월 25일(금)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파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기 타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할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더편한요양병원
수술 후 재활, 암요양, 교통사고 입원
장기요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9. 23.(수) 09:00~28.(월) 18:00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문의: 입학사정관 권혁민(루카) 051·510·0705
www.cup.ac.kr/ ipsi.cup.ac.kr

꽃동네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람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원서접수: 9. 23.(수)~28.(월)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문의: 043·270·010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 1명, 조리직 1명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알림 참조
 접수: 10월 30일(금) 14:00까지 서류 마감
 문의: E-메일-man0@cbck.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근속 교리교사 미사 및 시상식

일시: 10월 18일(주일) 14:30~16:30
 장소: 월영성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8)
 대상: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근속 교리교사
 내용: 미사 봉헌-주교님 집전, 근속 시상식
 신청: 9월 25일(금)까지 팩스 발송
 준비물: 미사 준비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1~2

2020년 본당사목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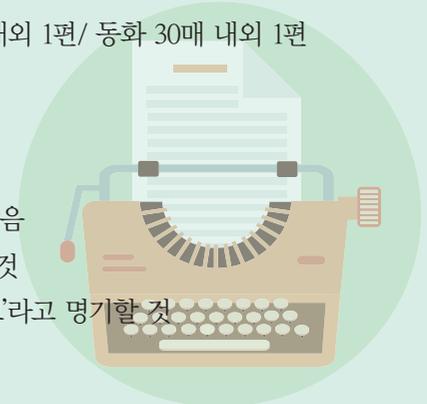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년 본당사목방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 자	오전(11:00)	오후(13:30)
10월 6일(화)	반 송	가음동
10월 8일(목)	망경동	옥봉동
10월 22일(목)	진 레	생림선교
11월 12일(목)	구암동	여좌동
11월 19일(목)	북신동	대 건

- 참석범위: 본당 신부, 수녀, 사목협의회회장단 최소한의 인원
- 내용: 본당현황 청취, 사목문서 열람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십자가, 그 사랑의 말씀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고통받는 무죄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노동자들과 같은 작은 이들의 일상의 고통에서부터 세월호나 큰 화재사건처럼 대형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며 동요하게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와 이웃의 억울한 일들과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고 울부짖습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직에 오르시고 3월 29일 콜로세움에서 가진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악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하느님은 악에 대해서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느님은 실제로 말씀하셨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씀은 사랑이고 자비이며 용서입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르멜 수녀는 이런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이란 책에서 “누구든지 사랑할 능력이 있으면 또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말씀처럼 “가르멜 수녀에게 십자가 없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듯이, 가르멜의 하루는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사랑이고 세상을 위한 봉헌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일치될 때, 사랑 안에서 생겨난 우리의 고통이 특별한 속죄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고통 안에서 그리스도의 협력자가 되어 그분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나누는 행복한 사랑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 테레사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디종에서 살았던 가르멜 수녀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은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가르멜 수녀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는 영혼,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성부께 봉헌한 희생 제물인 그분을 관상하는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거대한 신비 안으로 자신을 거둬들이며, 그분의 영혼이 간직한 사랑의 열정을 이해하고 그분처럼 자신을 내어 드리길 원하는 영혼입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없이 십자가 나무만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객실에서 그런 십자가를 보고 묻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고요? 이제는 우리 가르멜 수녀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상이 힘겹게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